

여성농업인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 분석

강혜정*

Keywords

여성농업인(women farmers),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토빗모형(Tobit model)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the opportunity costs of various roles that Korean women farmers perform and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ose opportunity costs using Tobit model. The opportunity costs of unpaid housework, farm work, and local community work that women farmers are performing are investigated from survey data for women farmers in their 40s and 50s. Th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relatively younger women farmers with higher education express that they are more willing to pay for alternative laborers; that is, women farmers with higher human capitals tend to evaluate highly their opportunity costs in all kinds of work.

차례

1. 서론
2. 이용 자료
3. 여성농업인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 평가
4.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5. 요약 및 결론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연구원

1. 서론

과거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단순히 가정주부, 농업보조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역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예, 축산, 낙농, 버섯 등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농산물 가공업, 관광농원 등의 농외소득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CEO도 등장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이농으로 농가의 가족관계가 부부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농업의 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07년 53%로, 지난 38년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전체 농사일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44%에 달할 정도로 여성은 농업의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다.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부녀회와 봉사활동 등의 지역사회활동도 활발하다. 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강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 농촌관광이나 지역개발에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마을 내 노인 돌봄 도우미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로서의 역할, 학교급식에서의 역할,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방문교육 도우미와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신규 여성농업인의 상담자로서의 역할 등 농촌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마을 이장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이장 6,602명 중 6.4%인 420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영농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이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과 사회활동 등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농가에서 고용하는 남녀 노동력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농촌임금을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농업노동은 노동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노동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임금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급 가족종사자로 간주되어 왔던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확한 농업노동 가치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상·재해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매우 불리한 보상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명확한 직업적 지위가 없으면 일반 가정주부로 평

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상 기준으로 지역의 일용근로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더욱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이 기여한 농업생산노동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 인정을 받아 농촌지역 여성 고용임금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여성 농업노동 고용자와 가족 여성농업인의 노동의 질은 차이가 있어 가족 여성농업인의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여성농업인은 고용 여성농업인보다 더 높은 인적자본(농사경력, 영농교육 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수행하는 농업노동의 강도와 질도 높아, 단순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여성 고용 인력보다 더 높은 농업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ultz, 1972; Huffman, 1992).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노동 및 역할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용 여성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최윤지 외(2002)와 유소이 외(2003)는 180개 미백 농가대상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바 있다. 방법론으로는 총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및 잠재적 임금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연간 농업노동 가치는 8조~10조원, 가사노동 가치는 4조~12조원으로 계측되었고, 여성농업인의 노동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정·권오상(2005)은 2002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투입물거리함수(input distance function)를 추정, 다산출물 생산 농가에 있어서의 농업가족노동의 잠재임금을 도출하여 농촌노동시장의 남녀임금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평균적인 잠재임금 추정치는 남녀 모두 고용노동 임금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된 잠재임금의 표본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저평가가 뚜렷하였으나, 표본중앙값을 사용할 경우 노동시장의 남녀 임금격차가 남녀 잠재임금격차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가치 평가 관련 선행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가치, 즉 농업노동의 잠재임금(Shadow wage) 추정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여성농업인의 가사활동, 영농활동,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각 역할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자료는 40대, 50대의 여성농업인단체 소속 중장년 여성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이다.¹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실태

1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혜정·마상진(2007) 참조

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설문조사 대상은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여성농업인 단체 소속 여성농업인이므로 전국 평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40, 50대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지역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므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2. 이용 자료

본 논문은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전북 무주, 2007년 9월 4일~5일)에 참석한 500명의 40대, 50대의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현재 이용 가능한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 중 표본 대표성이 높은 여성농업인실태조사(2003년)²의 여성농업인 연령분포와, 이 설문조사의 여성농업인 연령분포를 비교하면, 이용 자료의 여성농업인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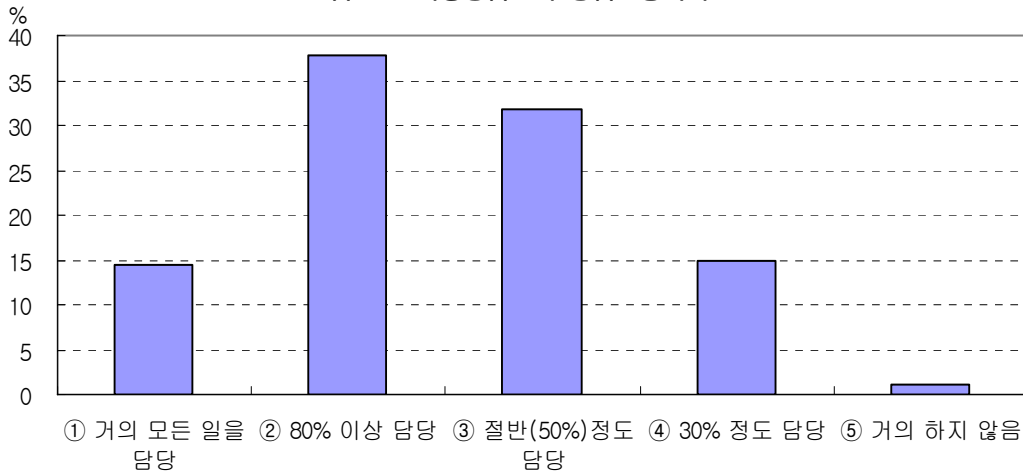
표 1. 설문 대상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03년)	중장년 여성농업인 설문조사(2007년)
평균 연령	58.2세	46.3세
40세 미만	5.7%	11.7%
40대	16.9%	59.8%
50대	27.1%	24.1%
60대	36.3%	4.4%
70세 이상	14.1%	0%

조상 대상 여성농업인의 38%가 농사일 전체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농사일을 거의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비중도 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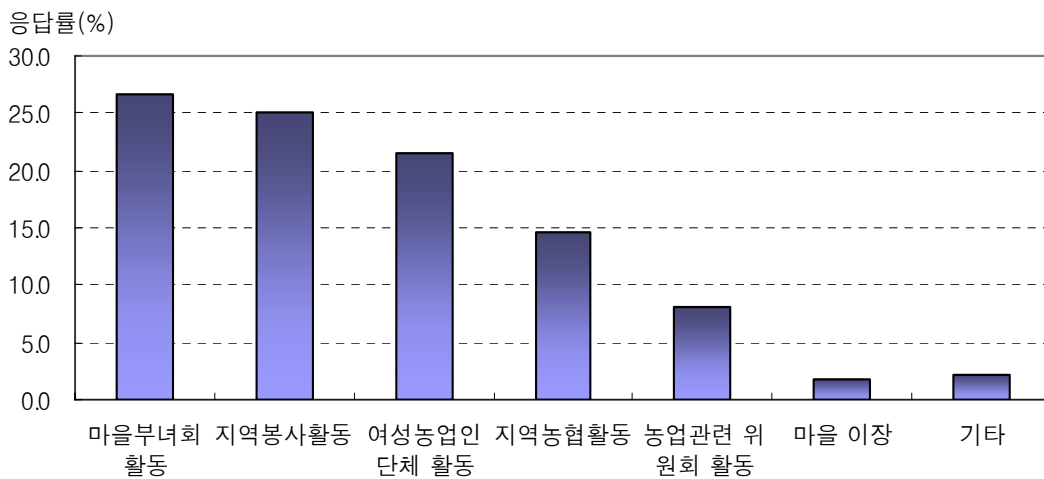
² 2000년 농업총조사의 1,384천 농가 모집단에서 층화추출법으로 여성농업인 1,521명을 조사한 전국적인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 자료임.

그림 1.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기여도



조사 대상 여성농업인의 90% 이상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젊고 활동적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농촌 사회의 강한 공동체적 특성과 고령화된 농촌에 여성농업인의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은 도시보다 활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으로 부녀회 활동(27%)과 지역봉사활동(25%)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영역 (복수응답)



3.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 평가

여성농업인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평가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를 정의할 수 있다. 기회비용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재화나 기회의 최대 가치이다.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의 기회비용은 각 역할을 대체하는 인력 고용에 대한 최대 지불의향(willingness to pay)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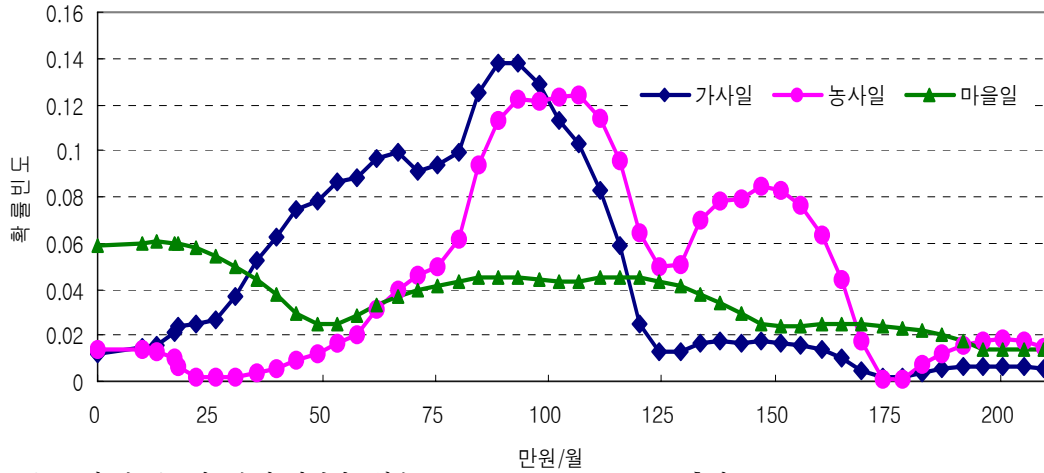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이 지금하고 있는 일들 이외 다른 일을 한다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대체할 인력에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관측되는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현시선호모형)과 설문조사법(진술선호모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법을 사용하였다. 경제 및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중장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사, 영농, 마을일을 대신 해줄 대체인력을 고용한다면 최대한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조사하였다.³

각 역할 유형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금액 분석 결과,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의 대체인력 고용에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그 다음이 가사일, 마을일 등의 순이다. 조사대상인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집안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90만원, 농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120만원,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82만원으로 나타났다.

역할 유형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농사일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은 월 약 100만원에서 가장 높은 확률빈도를 나타내고, 월 150만원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확률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사일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분포는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월 약 90만원에서 가장 높은 확률빈도를 나타내 농사일보다 낮은 지불의향 금액분포를 보인다. 마을일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분포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다.

³ 본 논문은 응답자가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부여하는 가치를 직접 말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인력을 고용할 때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직접 쓰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조사가 간편하나 응답자별로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가지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림 3.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 분포



주: 금액 분포는 비모수적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로 추정

활동유형별 여성농업인의 평균 기회비용은 영농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 밭작물과 채소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평가한 농사일에 대한 평균 기회비용은 128만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논벼농가의 평균 기회비용은 110만원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일반 밭작물 농가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축산농가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조사대상인 여성농업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사일을 대신해 줄 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가사일과 마을일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본인의 활동별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농사일의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이 높았다. 가사일과 마을일도 학력이 높은 여성농업인일수록, 대체인력 고용에 더 높은 지불의향 금액을 제시하였다.

표 2. 영농형태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

단위: 만원/월

	가사일	농사일	마을일
논 벼	77	110	80
과 수	80	122	90
채 소	79	128	89
화 훼	82	115	50
일반 밭작물	93	128	68
특용작물	78	119	64
축 산	86	121	98

그림 4. 연령대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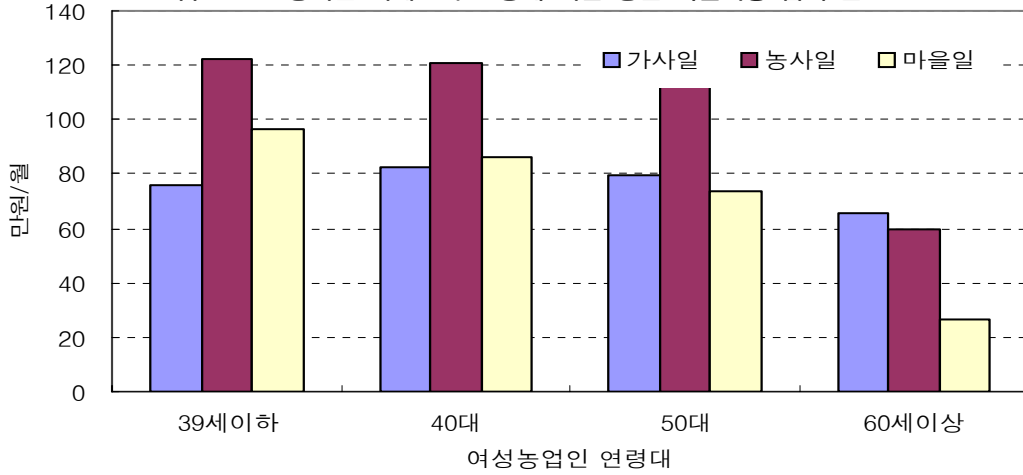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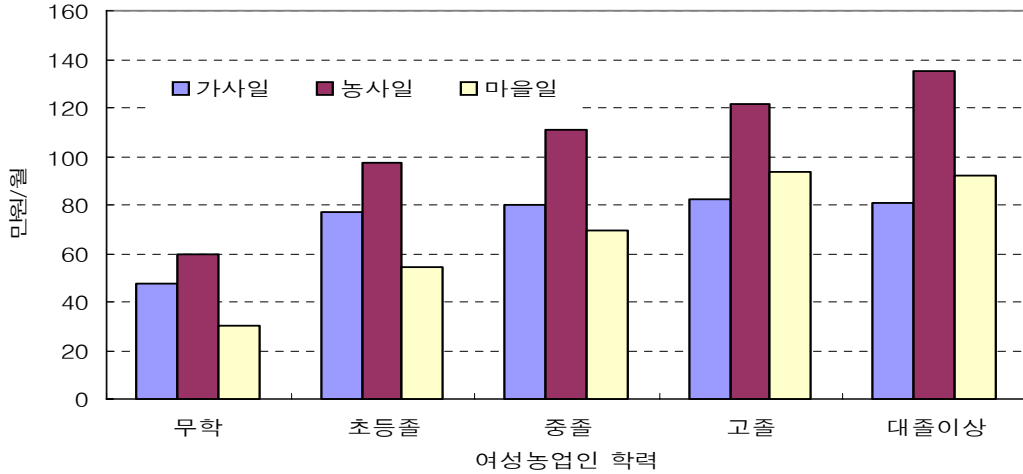


그림 5. 학력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 분포



4.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1. 분석모형

설문 대상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여성농업인의 유형별 역할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자료에는 대체고용인력 지불의향 금액이 영(零)인 관측치가 존재한다⁴. 영의 응답은 대체인력을 전혀 고용할 의향이 없거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의 응답은 경제적 행위에 부합한다(Deaton, 1997). 따라서 유의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기회비용 결정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인 토빗(Tobit)모형이 적합하다.

예를 들면 어떤 i 번째 관측치의 대체인력고용에 대한 지불의향금액(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은 토빗모형에 의해 표현된다.

$$(1) \quad y_i^* = x_i\beta + u_i, \quad u_i|x_i \sim normal(0, \sigma_u^2)$$

$$y_i = \max(0, y_i^*)$$

대체인력고용에 지불의향이 있는 경우 $y_i = y_i^*$ 이고, 지불의향이 없는 경우 $y_i = 0$ 과 같이 관측된다. 이와 같은 토빗 모형에 있어서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Amemiya, 1984; Wooldridge, 2002, p. 526).

$$(2) \quad \ln L = \sum_0 \ln \left(1 - \Phi \left(\frac{x_i\beta}{\sigma_u} \right) \right) + \sum_+ \left[-\ln \sigma_u + \ln \phi \left(\frac{y_i - x_i\beta}{\sigma_u} \right) \right]$$

단, Φ 와 ϕ 는 각각 표준정규분포함수와 표준정규밀도함수, \sum_0 은 y_i 가 0인 항만의 합, \sum_+ 은 y_i 가 0보다 큰 항만의 합이다.

지불의향이 있는 경우, 각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quad \frac{\partial E(y_i|x_i)}{\partial x_k} = \beta\Phi \left(\frac{\beta' x_i}{\sigma} \right)$$

4 전체 응답자 중 가사일, 노동일, 마을일에 대해 대체고용인력 지불의향 금액을 '0'으로 응답한 비중은 각각 3.2%, 2.0%, 30%로 나타났다.

4.3. 분석결과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60세 이상 연령에 비해 40세 미만,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농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대졸이상 여성농업인에 비해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학력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기회비용이 더 낮았다. 즉,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농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을 농업보조자라 응답한 여성농업인에 비해 전문농업경영인, 공동경영자로 인식할수록 기회비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평가하는 여성농업인의 기회비용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과 마을일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 지불의향 금액이 높을수록(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농사일의 기회비용이 더 높았다.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일들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본인의 농업노동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농형태별 농사일의 기회비용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채소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논벼농가의 여성농업인보다 농사일의 기회비용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4>는 여성농업인의 가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연령과 학력 변수만을 가지고 추정한 모형에서 60세 이상 여성농업인에 비해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이 본인의 가사노동 기회비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학력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기회비용이 높게 나타나, 가족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크고, 이에 대한 기회비용도 높게 평가함을 시사한다. 농사일과 마을일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할수록, 가사일의 기회비용도 높게 평가할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60세 이상 여성농업인에 비해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마을일 기회비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마을일의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할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났다. 농사일의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마을일 기회비용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 토빗 모형 분석결과: 여성농업인 농사일 기회비용의 결정 요인 분석

변 수	추정치	한계효과 (기회비용>0)	추정치	한계효과 (기회비용>0)
40세 미만	61.85 (4.27)***	59.79	63.48 (4.32)***	62.25
40대	63.23 (4.89)***	56.95	58.06 (4.35)***	54.04
50대	59.50 (4.52)***	56.79	57.56 (4.25)***	55.93
초등졸 이하	-33.46 (-3.02)***	-29.65	-27.17 (-2.52)***	-25.16
중졸	-24.29 (-2.64)***	-22.20	-21.01 (-2.32)**	-19.82
고졸	-16.30 (-1.89)*	-15.17	-16.30 (-1.99)**	-15.58
전문농업경영자			26.33 (2.66)***	25.61
공동경영자			14.57 (2.86)***	13.83
가사일 기회비용			0.40 (6.61)***	0.38
마을일 기회비용			0.14 (4.79)***	0.13
과수농가			7.10 (0.97)	6.82
채소농가			13.60 (1.86)**	13.11
화훼농가			1.96 (0.14)	1.88
일반 밭작물농가			9.05 (0.88)	8.71
특용작물농가			6.86 (0.78)	6.59
축산농가			1.31 (0.21)	1.25
상수향	75.36 (5.19)***		18.57 (1.20)	17.73
LR χ^2		42.56***		131.71***
Log likelihood		-2541.19		-2366.38

주: ()는 t값

본인을 전문농업경영자라고 생각하면 ‘전문농업경영자’=1, 아니면 0, 공동경영자라고 생각하면 ‘공동경영자’=1, 아니면 0, 농업보조자라 생각하면 ‘농업보조자’=1, 아니면 0.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연령 더미변수는 ‘60세 이상’임.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학력 더미변수는 ‘전문대졸 이상’임.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위상 더미변수는 ‘농업보조자’임.

추정을 위해 제거된 영농형태 더미변수는 ‘논벼농가’임.

*p<0.05; **p<0.01; ***p<0.001

표 4. 토빗 모형 분석결과: 여성농업인 가사일 기회비용의 결정 요인 분석

변 수	추정치	한계효과 (기회비용>0)	추정치	한계효과 (기회비용>0)
40세 미만	8.40 (0.79)	77.79	11.54 (0.84)	-10.60
40대	15.72 (1.66)*	14.28	2.60 (1.21)*	-2.43
50대	13.95 (1.45)*	12.96	3.47 (0.28)	-3.24
초등졸 이하	-4.08 (-0.51)	-3.71	-0.31 (-0.03)	0.29
중졸	-0.43 (-0.06)	-0.40	-2.46 (-0.30)	2.30
고졸	2.46 (0.39)	2.26	1.01 (0.13)	0.94
가족원수			1.89 (1.25)*	1.77
농사일 기회비용			0.19 (4.90)***	0.18
마을일 기회비용			0.04 (1.69)*	0.04
과수농가			-1.37 (-0.20)	-1.28
채소농가			-4.13 (-0.63)	-3.85
화훼농가			1.44 (0.13)	1.35
일반 발작물농가			30.78 (3.07)***	29.82
특용작물농가			1.88 (0.23)	1.77
축산농가			7.99 (1.46)	7.54
상수향	65.63 (6.17)***		47.53 (3.25)***	
LR χ^2	6.72		48.94***	
Log likelihood	-2374.65		-1612.73	

주: ()는 t값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연령 더미변수는 '60세 이상'임.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학력 더미변수는 '전문대졸 이상'임.

추정을 위해 제거된 영농형태 더미변수는 '논벼농가'임.

*p<0.05; **p<0.01; ***p<0.001

표 5. 토빗 모형 분석결과: 여성농업인 마을일 기회비용의 결정 요인 분석

변 수	추정치	한계효과 (기회비용>0)	추정치	한계효과 (기회비용>0)
39세 이하	83.16 (2.54)***	50.06	64.09 (1.82)*	37.69
40대	75.93 (2.55)***	37.56	55.51 (1.71)*	27.92
50대	73.36 (2.43)***	41.59	55.32 (1.68)*	30.94
초등졸 이하	-38.42 (-1.61)*	-18.21	-28.05 (-1.16)	-13.67
중졸	-26.60 (-1.36)	-13.26	-19.20 (-0.95)	-9.72
고졸	3.94 (0.22)	2.02	9.59 (0.52)	4.96
가사일 기회비용		-0.81	0.09 (0.66)	0.05
농사일 기회비용			0.48 (4.67)***	0.25
과수농가			1.94 (0.12)	1.01
채소농가			1.94 (0.12)	1.01
화훼농가			-66.95 (-2.06)**	-29.18
일반 밭작물농가			-26.40 (-1.12)	-12.82
특용작물농가			-34.65 (-1.72)*	-16.56
축산농가			13.96 (1.00)	7.41
상수향	-1.57 (-0.05)		-51.09 (-1.41)	
LR χ^2	22.61***		61.27***	
Log likelihood	-2171.30		-2038.63	

주: ()는 t값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연령 더미변수는 '60세 이상'임.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학력 더미변수는 '전문대졸 이상'임.

추정을 위해 제거된 영농형태 더미변수는 '논벼농가'임.

*p<0.05; **p<0.01; ***p<0.001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가사일, 마을일 수행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즉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농업인은 가사일, 농사일, 마을일에 대한 본인의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농사일과 마을일의 기회비용을 평가할 때, 인적자본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자신을 농업보조자보다는 공동경영주, 전문경영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본인의 농업노동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른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할수록, 현재 역할의 기회비용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농형태가 기회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농사일의 기회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다른 역할의 기회비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5. 요약 및 결론

경제 및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중장년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각 역할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금액 분석 결과,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의 대체인력 고용에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그 다음이 가사일, 마을일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여성농업인의 집안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90만원, 농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120만원,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8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사일과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즉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여건변화 속에서 젊은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기회비용도 일용직 여성 고용자의 임금보다 높게 나타나,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거 전체 여성농업인을 단순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한 여성복지 중심의 획일

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도 새롭게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여성농업인 정책이 필요하다. 즉, 연령별, 활동수준별로 여성농업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족 여성농업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실질적인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혜정·권오상. 2005. “농업가족노동의 잠재임금 추정.” 『농업경제연구』 제46권 제4호: 143-165.
- 강혜정·마상진. 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지·유소이·최현자. 2002.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3집 제1호: 25-40.
- 유소이·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농촌사회』 제13집 제2호: 245-270.
- Amemiya, T. 1984. “Tobit Models: A Survey,” *Journal of Econometrics* 24: 3-61.
- Huffman, W. E. 1992. *Costs and Returns: A perspective on estimating cost of human capital service and more*. Westview Press: 312-336.
- Schultz, T. 1972. “The increasing economic value of human tim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4: 843-850.
- Wooldridge, J. M. 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원고 접수일: 2008년 5월 23일 원고 심사일: 2008년 6월 30일 심사 완료일: 2008년 10월 7일
--